

윤영철·곽도규 설레는 1군 데뷔 준비



하늘을 올려보면 '루키'들이 그라운드를 보면서 성장하고 있다. 주중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했던 KIA 타이거즈는 15일부터 고척에서 원정 3연전을 벌인다. 이번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위해 두 명의 신인 선수가 고척행 버스에 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난 윤영철, 곽도규가 그 주인공. 특히 윤영철은 15일 선발로 낙점돼 키움을 상대로 1군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두 선수 입장에서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지난 주였다.

4일부터 진행된 KT위즈와의 원정 3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다. 윤영철의 선발 등판도 미뤄졌다.

김중국 감독은 홈 개막전이라는 부담 많은 상황 대신 시범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선보였던 키움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대신 윤영철은 8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워밍업을 했다.

곽도규는 12일 한화전까지 그라운드만 내다봤

윤영철, 내일 키움전 선발 등판

"긴장 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

곽도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다. 비로 3경기가 취소되면서 12일까지 KIA는 7경기만 소화했다. 이 중 3경기는 1점차로 승패가 결정됐고, 160km를 찍은 한화 문동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12일 경기도 2점차로 승부가 갈렸다.

긴박한 승부로 필승조가 바쁘게 돌아갔지만, 비로 3경기를 쉬면서 불펜 여유가 있었던 만큼 '신인' 곽도규에게 등판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기다렸던 순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두 선수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 선배들의 움직임은 보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공부다.

지난 12일 생일이었던 곽도규는 "생일에 1군에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며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경기 못 나가는 건 내가 부족해서니까 계속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하던 대로 하겠다"며 데뷔를 기다리는 마음을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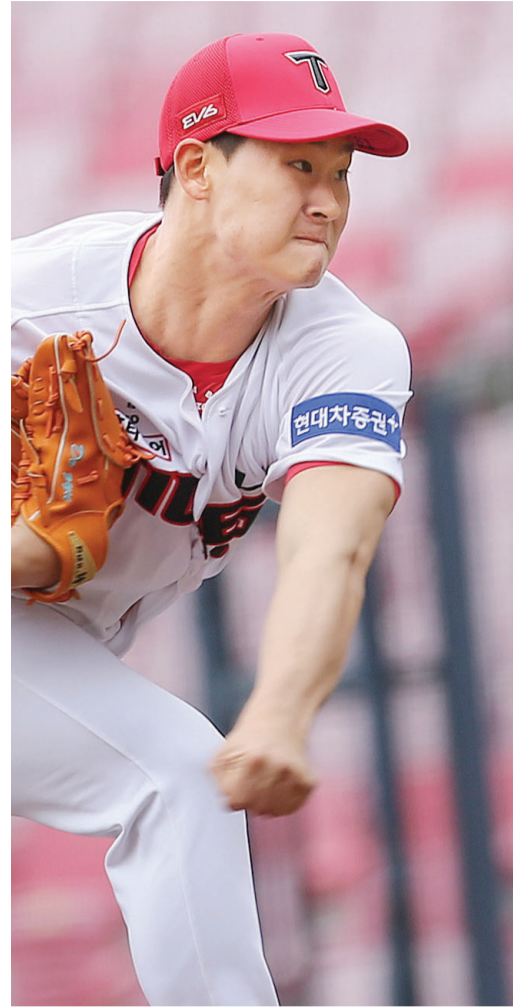
급한 그는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학생 때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다'라는 말이 와 닿지 않았는데 한 명도 빠짐 없이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나도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더 소중해진 것 같다"고 1군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다.

윤영철은 기대감으로 15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기대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고 긴장도 된다"면서도 "한번 해본 팀이기도 해서 편하게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퓨처스 등판을 통해 만반의 준비는 끝냈다. 윤영철은 "확실히 타자들도 다르고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이것저것 해봤다. 손승락 감독님이 1군에서 못하는 걸 많이 해보고 해서 평소 시도하지 않은 것도 해봤다"며 "커브를 많이 던졌다. 카운트용 커브, 타이밍 뺏는 커브도 구사해봤다. 체인지업도 많이 뿌렸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경기 때는 편하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모든 선수들이 약처럼 보이는데 해보려는 게 보인다"며 "처음 마운드에 올라갈 때 긴장될 것 같은데 하다보면 편할 것 같다. 잘 던지면 좋겠지만 못 던지더라도 값진 경험 될 것이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던지겠다"고 1군 데뷔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곽도규



윤영철

광주FC·전남 드래곤즈 'FA컵 동반 승리'

광주, 대구 원정 승점 쌓기 ... 전남, 안방서 충북청주 상대

FA컵에서 승리를 신고한 광주FC가 '약속의 땅' 대구로 가서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광주는 16일 오후 7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7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지난 6라운드 포항원정에서 0-2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안방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광주는 지난 12일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2023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4분 나온 박한빈의 선제골과 1-1로 맞선 후반 44분 터진 이경희의 추가골로 2-1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이 승리로 로테이션을 통한 주축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스쿼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분위기를 이어 광주는 기본 좋은 기억이 있는 대구를 만난다.

광주에 DGB대구은행파크는 약속의 땅이다. 광

주는 지난 2020시즌 첫 방문 이후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시원한 공격력도 눈에 띈다. 3경기에서 광주는 12득점(6실점)에 성공하면서 승점 9점을 만들었다.

FA컵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찾은 광주는 이경희, 이강현, 신창무 등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의 경기력까지 끌어올렸다. 더 탄탄한 전력으로 대구를 찾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광주가 올 시즌 3승 3패(승점 9)로 5위에 자리하고 있고, 대구는 1승 3무 2패(승점 6)로 현재 8위다.

대구 앞선 원정 2연전에서 1무 1패로 주춤했지만 앞선 홈경기에서 '우승후보' 전북 현대를 2-0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또 FA컵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는 등 홈 2연승 중이다.

또 에드가와 세장야, 세라토 등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이진용, 이근호, 홍정운, 김진혁 등 수준급 실력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광주가 타이탄 압박과 양성환 활동량으로 대구 공격을 묶고, 역습으로 골망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도 FA컵 승리 분위기를 이어 안방에서 승리를 노린다.

전남은 12일 열린 FA컵 3라운드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전반 19분 추상훈의 골로 포문을 연 전남은 충남아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후반 24분 송승민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전남은 후반 36분 하남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41분 이학민에게 실점하면서 2-2에서 뒷심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박대용의 '극장골'로 3-2 승리를 장식하면서 다음 무대로 올라가게 됐다.

전남은 '극장골'의 여운을 살려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충북청주를 상대로 15일 오후 1시 30분 K리그2 7라운드 경기 승리를 노린다.

뜨거워진 발끝이 반갑다. 지난 2일 전남 원정에서 3-1 승리를 거둔 전남은 앞선 성남과의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2골을 기록했다. FA컵에서도 3골을 장식하는 등 매서워진 창으로 신생팀 충북청주와 첫 대결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PL 100골' 손흥민의 가장 빛난 골은?



손흥민이 지난해 5월 노리치 시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리그 23호 골을 터뜨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 골로 아시아인 첫 EPL 득점왕에 오르며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동료들 '골든부트 골' 최고

푸슈카시상 버린전 원더골도 꼽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골을 기록한 손흥민(토트넘)의 '가장 빛난 골'은 무엇일까.

토트넘 풋스퍼는 12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이 직접 뽑은 손흥민의 '최고의 골'을 공개했다.

2015년 8월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같은 해 9월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EPL 데뷔골을 터뜨린 뒤 7년 7개월 동안 리그 260경기에서 100골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달 8일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앨비언과 2022-2023시즌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오른발 갑자차기 슈트로 100번째 골을 터트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을 포함하면 토트넘 소속으로는 공식전에서 총 142골을 넣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과 EPL 최다 합작 골 신기록을 세운 리즈 유나이티드전 골을 꼽았다.

리그 '최고의 콤비'로 불리는 케인과 손흥민은 지난해 2월 리즈와 2021-2022시즌 EPL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통산 37번째 합작 골을 만들어냈다.

케인이 뒤에서 길게 넘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면서 이들은 첼시에서 뒀던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로그바의 36골을 넘어 새 역사를 썼다.

케인은 "리즈 원정에서의 골을 꼽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에게 패스했고, 손흥민은 퍼스트 터치

이후 (합작 골) 기록을 경신하는 골을 넣었다. 그 골이 정말 즐거웠다. 손흥민이 진정한 재능이 드러난 골"이라고 말했다.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에릭 디아어, 벤 데이비스 등은 지난 시즌 손흥민에게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타이틀을 안긴 노리치시티전 골을 꼽았다.

손흥민은 지난해 5월 노리치 시티와 EPL 최종라운드에서 리그 22호, 23호 골을 연달아 터트리며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당시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득점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결국 손흥민은 후반 25분과 30분 두 골을 뽑아내며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부트'를 품에 안았다.

콜루세브스키는 "손흥민의 노리치시티전 골들은 중요했고, 그에게도 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손흥민에게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안긴 '버린전 원더골'도 빠지지 않았다. 올리버 스킵 등이 손흥민의 버린전 득점을 가장 좋아하는 골로 뽑았다.

2019년 12월 버린전과 2019-2020시즌 16라운드에 출전한 손흥민은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 혼자 약 70m를 질주했고, 버린 선수 6명을 따돌리며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트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 골로 손흥민은 한 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최고의 골을 가려 시상하는 푸슈카시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다빈손 산체스는 "하나만 고르기는 어렵다"며 난처해했고,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손흥민이 득점할 때마다, 항상 최고의 골이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인지 호쾌한 티샷

전인지가 12일 미국 하와이 오후우섬에 위치한 호아칼레이CC에서 열린 LPGA투어 2023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 8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투어 시즌제 변경...가을 시리즈 10개 대회 개최

시즌 제도를 변경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올해 가을 시리즈 일정을 1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PGA 투어는 이번 시즌까지 2022-2023시즌으로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2024시즌으로 시즌 기간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해마다 가을에 개막해 다음 해 8월 정도에 끝나는 시즌 일

정이 새해 1월 개막하는 일정으로 바뀐다.

PGA 투어가 발표한 올해 가을 시리즈 대회는 9월 1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에서 열리는 포타넷 챔피언십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10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 조조 챔피언십이 열리고, 11월에는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 버뮤다 챔피언

십, RSM 챔피언십이 이어진다.

이 7개 대회가 정규 투어 대회고, 12월로 예정된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과 그랜트 손턴 인비테이셔널, PNC 챔피언십은 비공식 이벤트다.

가을 시리즈 대회 가운데 정규 투어 대회인 7개 대회에는 다른 일반 투어 대회와 마찬가지로 우승자에게 2년간 PGA 투어 출전 자격, 시즌 개막전인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대회 출전 자격 등을 준다.

연합뉴스